



특허청

# 보도자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10. 20.(목) 배포즉시	배포 일시	2022. 10. 20.(목)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책임자	과장 신원혜 (042-481-8254)
		담당자	사무관 박승배 (042-481-8469)

## 특허청, 특허기반 연구개발 지원기업 현장목소리 청취

- (주)에스피지, 특허청 지원사업 참여로 핵심부품 국산화 성공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지난 10월 19일 오후 3시 감속기\* 제조기업인 에스피지(인천 남동구)를 방문하여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 모터에 기어를 연결해 회전속도를 늦추면서 힘을 전달하는 부품으로, 로봇, 공작기계, 자동화기기 등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

○ 이날 이인실 청장은 윤관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원장, 인천 남동을)과 함께 특허청의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 전략지원 사업' 성과 점검 및 특허청 지원시책과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논의하였고, 생산시설 및 제품전시실 등을 둘러보았다.

### <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전략지원 >

◇ 연구개발 초기단계에서 전세계 특허정보를 분석하여, ① 기업의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연구개발(R&D) 방향 설정, ② 해외장벽 특허를 극복, ③ 특허기술 공백영역에 대한 유망특허 선점 등을 지원

□ 에스피지는 특허청 사업('20)을 통해 기술개발 방향과 특허분쟁 대응전략을 지원받아 특허분쟁의 우려가 없는 기술을 개발하여 '정밀 감속기'의 국산화에 성공하였다.

□ 이인실 특허청장은 "해외 경쟁기업의 특허장벽을 극복하고, 로봇 핵심부품(정밀 감속기)을 빠르게 국산화한 숨은 비결은 면밀한 특허 정보 분석"이라고 하면서, "특허청은 특허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기술개발 뿐 아니라 사업화 단계까지 다각도로 기업 활동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참고1 기업 개요 및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 사업 성과

## 1. 기업 개요

- 기업명 : 에스피지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289(남동공단 입주기업)
- 기업규모 및 업종 : 중견기업 /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2.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전략지원 사업 개요

- 특허전략전문가(특허청 산하기관 소속)와 특허분석기관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특허정보를 활용한 개별기업 맞춤형 연구개발 전략 지원

- ① 해외기업 장벽특허 대응 전략 제공 → 특허분쟁 우려 없는 기술 개발
- ② 유용한 특허정보를 바탕으로 최적 연구개발 방향 제시 → 연구개발 기간비용 단축
- ③ 특허 공백영역 발굴 → 공백 유망기술 선점을 통한 우수특허 확보

## 3. IP-R&D 성과 : 분쟁 대응전략 및 설계 가이드 제공 → 소부장 국산화 성공

### 문제 특허분쟁 우려 없는 독자기술 개발

- ▶ 로봇용 감속기 세계시장을 독점하는 A사(일본)와의 특허분쟁 위험요인 해소 필요
- ▶ 독자기술 개발을 위한 치형(齒形) 설계 노하우 필요



### 해결 사업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및 설계 가이드 제공

- ▶ (특허문제 해결) A사의 핵심특허 2건에 대한 회피 등 대응 전략 제공
- ▶ (자체개발 지원) 주요특허 21건을 분석하여 설계데이터 및 노하우를 추출 → 치형 설계 가이드 제공 및 유망 연구개발 방향 제시

### 성과 소부장 핵심부품 국산화 성공, 매출성장 및 우수특허 확보

- ▶ (제품출시) 로봇용 고정밀 감속기 상용화 성공 및 양산체제 구축
- ▶ (매출성장) <sup>(19년)</sup>3,152억 → <sup>(21년)</sup>4,163억으로 32% 증가
- ▶ (특허확보) 고정밀 감속기 특허 5건 출원 → 등록 완료

## 참고2 기업 개요 및 IP-R&D 사업 성과



이인실 특허청장(왼쪽 2번째)과 윤관석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왼쪽 3번째)이 10월 19일 3시 감속기 제조기업인 에스피지(인천 남동구)에 방문하여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가운데)과 윤관석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왼쪽)이 여영길 에스피지 대표(오른쪽)에게 감속기 부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